

일제 말기 이광수 징병관련 소설의 프로파간다 전략 연구

김 경 미

〈목 차〉

- I. 서론
- II. 일본어 매체의 정치 담론과 서사로의 전유
- III. 정치 담론과 현실 담론의 괴리
- IV. 결론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일제 말기 이광수의 징병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당대의 상황과 정치 담론, 그리고 매체와의 상호관계를 통해 텍스트의 프로파간다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 말기 징병관련 소설들은 주제적 측면에서는 대동아공영에 동조하고 징병을 중용하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과 구성적 측면에서는 각각 차이가 드러났다. 또한 매체의 특성과 언어 사용의 차이에 따라 독자의 구성과 선전 방식이 달라지는 등 이 시기 이광수 소설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차이를 보여준다.

『대동아』는 『녹기』가 추구하는 ‘고쿠타이(國體)’사상과 ‘동아블록’의 정치 담론을 수용하여 선전 전략을 기획했으며, 이는 조선인 대신 중국인을 주요 인물로 설정하고 일본정신과 영미 사상의 대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즉 『대동아』는 매체 『녹기』의 정치 담론을 전유하여 서사로 재현한 것이었다.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죽어가는 아들의 군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신태양』의 일본인 독자에게 호소하고 징병제를 도입해 준 당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전유하였다. 결국 이광수는 일본어로 쓴 이 텍스트에서 현재 상황의 징병제 도입에 대한 감격과 당위성을 아들의 ‘죽음’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원술의 출정』은 역사독물의 방식으로 일본정신을 교화하고자 한 『신시대』의 매체 담론을 수용하여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여 프로파간다의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방송소설로 이용된 이광수의 소설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은 국어(일본어) 해

독이 불가한 조선인들의 충후봉공과 국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물적 측면에서 ‘개선’의 플롯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프로파간다적 텍스트들이었다. 『방공호』는 구세대가 신세대의 모습에 자극받아 각성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가의 의도와 상반되는 현실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프로파간다를 위해 기획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귀거래』와 『구장님』은 일제의 ‘지주생산책임제’와 ‘부락책임공출제’가 실시되고 있는 조선의 암담한 현실 상황을 배제한 채 일제의 교조적 정치 담론을 서사로 형상화한 것이어서 프로파간다 전략은 과잉으로 드러나면서 그 효용성은 떨어졌다. 즉 이광수의 의도된 전략이 오히려 당대 현실에 눈감아버리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텍스트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주제어: 이광수, 징병, 프로파간다 전략, 매체, 정치 담론,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 『녹기』

I. 서론

이 논문은 전시 체제기¹⁾ 이광수의 징병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텍스트에 드러난 정치 담론과 당대 상황, 그리고 매체와의 상호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소설의 프로파간다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기는 전쟁 상황의 긴박함으로 인해 조선에 펼쳐진 일제의 식민정책도 급박하고 혼란스럽게 시행되었다. 특히 내선일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국어(일본어) 사용과 지원병 제도, 징병 제도는 정책의 이중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민지의

1) 전시 체제기는 주로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1937년에서 1945년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광수의 텍스트에서 주로 징병관련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전시 정점기인 1943년에서 1945년에 창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광수가 전향한 시점부터 1940년대 초기의 텍스트는 주로 ‘내선일체’와 관련된 주제의 작품이 창작되어서 징병관련 소설은 드물었다. 1943년 즈음에 주로 창작한 징병관련 소설은 이 당시 징병을 종용하는 시국 연설을 감행한 이광수의 행적과도 관련이 있다. 무엇보다 일본어 전용정책을 감행했던 일제 당국이 징병을 위해 조선어로 작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측면에서 이 당시 이광수의 징병소설은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연구 대상 텍스트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프로파간다의 목적성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전시 정점기에 창작된 징병관련 작품을 대상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문학장 역시 조선어와 일본어 혼용, 일본어 전용, 또다시 조선어 허용을 반복하면서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였다.

익히 알다시피 전시 체제기의 이광수 소설은 황민화론에 기반을 둔 총후봉공, 징병징용과 관련된 대중의 계몽과 교화를 목적으로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일제의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지원병과 징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프로파간다의 직접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이광수의 소설들의 주제가 관제 언론지인 『매일신보』에 주로 등장하는 시국정책의 선전용 기사의 내용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 유일하게 조선어로 발행되었던 관제 신문인 『매일신보』는 주로 조선인들을 교화하고 선전 선동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광수는 일제의 대동아공영을 위한 명분인 황민화와 내선일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시국에 발맞추어 조선인을 계몽하고 교화하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광수는 1940년경부터 적극적으로 황민화를 자신의 민족담론으로 전유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40년에서 1942년까지는 내선일체를 위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랑을 통한 내선 결혼을 주제로 한 작품인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그들의 사랑」, 「봄의 노래」를 발표하였다. 그러다가 1943년에서 1944년에는 주로 징용 징병 그리고 총후봉공과 관련된 작품인 「군인이 될 수 있다」, 「대동아」, 「원술의 출정」을 발표하고, 전시기 막바지인 1944년에서 1945년까지는 조선어로 창작 가능한 방송관련 소설인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등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시 체제기의 정점기에 주로 발표된 징병관련 소설과 전시기 막바지의 조선어 소설을 중심으로 당대 정치 담론과 매체의 상관성을 통해 드러나는 텍스트의 프로파간다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는 발표 매체가 극도로 제한되었다는 점, 식민 당국의 규제가 심각했다는 점에서 작품을 실을 수 있었던 매체의 특징과 작품의 성향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 시기 매체와 담론, 현실 정치 상황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텍스트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일제 말기의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이다.

이 시기 이광수의 일제 말기 소설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다. 특히 식민주의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의 텍스트가 의도치 않게 식민 담론을 이탈하는 균열의 상황을 분석하여 협력의 문학, 친일의 논리로만 해석되던 이광수의 일제 말기 소설들의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존 연구로 이경훈은 이광수의 일제 말기에 창작된 대부분의 작품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이 시기 이광수의 작품을 “스스로 제국주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타력본원적인 욕망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하고 일제 말기에 창작된 작품의 근원을 그의 초기 문학에서 이끌어냄으로써 친일의 내적 논리를 규명해 내고 있다.²⁾ 김경미는 일본어에 대한 조선어의 간섭현상을 통해 이광수가 의도한 국책협력의 내용과 표현된 언어 사이의 이탈과 어긋남의 양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광수의 일제 말기 글쓰기가 의도치 않은 조선적 정체성으로 인해 일본 문학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는 차이를 밝힘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³⁾ 최주한은 일제말기에 이광수의 방송소설을 중심으로 ‘말해야만 하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작가가 조선어를 통해 은밀하게 드러내고자 한 부분에 집중하여 당대 식민담론과 차이를 보이는 작가의 이면의 목소리를 포착하고 있다.⁴⁾

이러한 기존 논의의 성과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일본어 매체에 실린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이 동일한 일본어 사용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주제, 사건 구성과 인물 설정이 현격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여 텍스트의 프로파간다의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이 시기 조선어로 쓴 질병관련 소설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은 일본어 전용 소설과는 또 다른 전략의 차이가 나타났다. 방송소설로 창작된 이 작품들은 일본어 소설과 달리 조선인 대중들을 교화하기 쉬운 형식의 플롯을 사용한다. 이러한 특징들에 주목하여 본고에서는 일제 말기의 정치 담론, 식민지 조선의 현실 상황과 담론의 차이, 그리고 텍스트가 실린 매체와의 관련성을 통해 이 시기 질병관련 소설들에 드러난 이광수의 프로파간다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일본어 매체의 정치 담론과 서사로의 전유

-
- 2)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266-357쪽.
 - 3) 김경미, 「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12, 41-74쪽.
 - 4) 최주한, 「이광수의 친일문학을 다시 생각한다」,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 2014, 481-509쪽.

일제는 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위해 먼저 언어 사용 부분을 정책적으로 개편하였다. 1938년 3월에 행해진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38년 2월의 『육군특별지원병령』을 위한 초기 작업으로서 행해진 것이었다. 우선 중등학교에서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하고, 일본어만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⁵⁾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은 전쟁 동원에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본어 상용을 법으로 규제한 것이다. 즉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물밑 작업으로서 황민화 구축의 일환이 바로 조선어 폐지에 따른 국어(일본어)사용이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조선어 사용 매체들은 강제로 폐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관제 언론지인 『매일신보』를 제외한 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조선어로 간행된 모든 잡지들이 폐간 조치되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인 문학인들은 일본어로 창작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광수는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작가였다는 점에서 창작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신의 정체성과 독자 다수인 조선 민중의 일본어 해독 능력을 고려하여 창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본격적으로 일본어 전용으로 쓴 작품들이 창작된 것은 1943년경부터의 작품으로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 등이 있다. 각각의 작품들은 주제적 측면에서는 대동아공영에 동조하고 징병을 중용하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과 구성적 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매체의 특성과 일본어로 창작한 소설을 읽는 독자의 구성에 따라 이광수의 일본어 소설의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장에서는 매체의 특징이 가장 뚜렷한 『녹기』⁶⁾에 실린 「대동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군인이 될 수 있다」와 「원술의 출정」은 보완적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대동아」(『녹기』, 1943.12.)는 독특하게도 일본인 가게이 선생과 그의 딸 아까미, 그리고 중국인 범우생과 그의 아버지 범학명이 주요인물로 나오는 작품이다. 일본정신을 모르는 중국인 청년에게 가게이 교수는 일본정신을 가르치고 설교하여 결국 황도정신을 깨우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서술자가 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인물들의 생각을 그려내고 있지만 서사의 중심을 이루고

5)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12, 277-294쪽.

6) 『녹기』에 실린 이광수의 소설은 「대동아」이외에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1940.3)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본고에서 선정한 대상 작품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고 주제도 달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있는 인물은 가게이 박사이다. 범우생은 일본이 중국을 침공한 것과 대동아담론에 대한 회의로 가게이 박사의 설득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중국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날 아까미에게 온전히 일본정신이 옳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일본으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한다. 결국 범우생은 5년 후 아까미에게 돌아오면서 서사는 끝이 난다.

이 텍스트는 조선인 작가가 일본인과 중국인의 사상적 대립을 통해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을 선전 선동하는 내용이다. 왜 굳이 조선인이 아니라 중국인을 내세웠는가에 대해서는 작가가 이미 완전히 내선일체화된 서술자의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⁷⁾ 즉 가게이 박사의 시선이 서술자와 동일시 될 때 이 해석은 정당하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텍스트는 매체 『녹기』에 실린 일본어로 쓴 것을 감안할 때 또 다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

잡지 『녹기』(녹기연맹)는 고유한 강령과 조직을 지닌 식민지 시대 가장 큰 사상운동 단체였으며, 어떤 면에서는 일본 본토의 사상운동을 압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녹기』의 내선일체론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동화일체론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평행체휴론과 동화일체론 모두를 비판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동화를 주장하고 그 중심에 고쿠타이(國體)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⁸⁾ 『녹기』는 1939년을 기점으로 조선인에게도 소수의 집필권을 개방하였지만 일본적 성향이 가장 강력한 잡지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 관변측 고관 출신 다수가 평의원으로 참가했을 정도로 일본인 주도의 잡지였다. 이런 성향의 잡지에 이광수의 글이 실렸다는 것은 이광수도 『녹기』의 사상⁹⁾에 동조하는 측면이 강했을 것이며, 여기에 실린 논설이나 소설 역시

7) 이경훈은 『대동아』는 “새 아버지 찾기”를 이미 끝낸 상태에 있으며, “내선일체”를 논하기보다는 가게이 박사와 동일화된 상태, 내선일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중국인을 향해 대동아공영권을 논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조선인으로 하여금 식민지인의 위치를 극복하고 다른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448쪽.

8) 채호석, 「1940년대 일본어 소설 연구: 『녹기』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10.2, 437쪽.

9) 『녹기』는 1936년에 발간되었고, 녹(綠)의 생활운동을 제창했는데, 이것은 일본국 고유의 국제 정신에 기초하여 동양 및 서양의 문화를 종합하고 아시아와 세계를 지도함에 만족해야 할 일본인의 생활을 창조하고자하는 신생활 원리이다. 초기 『

『녹기』의 사상과 일맥상통한 지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당시 이광수의 논설들은 징병제의 감격과 반도 청년들에게 징병의 중요성, 그리고 조선인들에게는 충후봉공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주로 대중오락잡지의 역할을 한 『신시대』에 가장 많은 논설을 실었고, 비슷한 내용으로 『매일신보』와 『국민문학』, 『춘추』에도 몇 편 실었다. 그러나 소설 『대동아』가 실린 『녹기』에는 이 시기에 유일하게 논설 『대동아전쟁의 교훈』(1943.8.)이 실렸다. 대동아전쟁의 당위성과 일본이 주도하는 대동아 전쟁의 정신과 영미 전쟁의 타락성을 비교 대조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다른 잡지에 실린 논설들이 대부분 조선인 대중을 대상으로 계몽하고 교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반면, 『녹기』에 실린 이 논설은 일본의 국체가 세계에서 으뜸임을 제시하고, 영미는 그 대척점에 있음을 비교해서 논하고 있다. 특히 이전의 논설과 달리 구성방식으로 머리말을 쓰고, 본문에서는 ‘국체인식’, ‘도덕적 세계관’, ‘가치의 귀정’의 소주제를 설정하여 각각의 주제를 논하고 있다.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반도 조선인을 향한 교화가 아니라 재조 일본인을 향한 대동아담론의 정당성과 일본 국체의 위대함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이 논설 머리말에서 필자는 스스로 서민임을 자처하고, 글의 수준은 ‘일본인에게 바치는 소견’ 정도임을 어필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다.

나는 한 사람의 서민(庶民)이다. 대동아 전쟁에 관한 지식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얻은 것이며, 그것조차도 역사가적(歷史家的)으로 수집, 정리했을 리 없다. 단지 들은 이야기, 읽은 이야기의 기억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소위 서민적 인식이라는 것이라. 나는 이 서민적 인식에 기초해 나 자신이 얻은, 또는 발견한 대동아전쟁의 교훈을 적어보고 싶다.¹⁰⁾

위의 인용문은 논설 머리말의 마지막 부분으로 독자를 향해 매우 겸손함을

『녹기』의 활동은 재조 일본인과 그 2세들의 국체정신을 함양시키고 일본인으로서는 자각을 일깨우는 데 있었다. 한편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급진적 내선 일체론이 주장되고 내선일체운동의 강령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단체로, 내선일체 정책을 공급하기도 하고 총독부의 정책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뒷받침한 단체였다.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제 50권, 역사문제연구소, 2000. 2, 200-216쪽.

10) 이광수, 『대동아전쟁의 교훈』(『녹기』, 1943.8.),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405쪽.

드러내고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나도 얻어 들은 미천한 수준임을 미리 공지하고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구성방식은 다른 어떠한 논설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녹기』의 매체적 성격과 일본인 독자 구성원을 의식하여 나온 구성방식이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식량은 일본 전체의 식량이 아니면 안 된다. 일본은 천황을 받들어 모신 한 가족이며, 영리를 목적하는 자유로운 개인이 모인 세대는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일본의 국체가 세계에서 으뜸인 이유이며, 미영의 그것과는 실로 대척을 이루는 바이다.(중략-인용자) 영미인 및 영미의 사상은 실로 오랫동안 인류의 양심과 올바른 진로를 덮어 가리고 있던 요운(妖雲)이었다. 그들의 정치 철학, 경제학, 생물학, 역사는 실로 우리의 심안(心眼)을 흐리는 사술(詐術)이었던 것이다. 이 무서운 저주는 대동아 전쟁에 의해 멋지게 깨어졌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아시아인 본연의 자세, 일본인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어능위(御陵威)에 기대어 이 악의 근원을 잘라버리기 위해 씩씩하게도 일어났던 것이다.¹¹⁾

위의 인용문은 일본의 국체와 영미의 사상을 대조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본론의 모든 항목들이 일본의 국체인 황도정신과 영미의 이욕 및 자본의 논리를 비교하여 일본정신을 찬양하고 있다. 식량의 국가관리 문제, 청년의 동원 체제 등은 모두 황도의 정신을 발현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사상은 『녹기』의 사상적 측면인 국체를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적인 사상을 비판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이 시기 『녹기』에 실린 소설 「대동아」도 이 매체의 사상적 측면과 연관되고 자신의 논설의 내용과도 이어진다. 또 「대동아」의 독특한 인물구성도 『녹기』의 담론과 연관이 되고 있다.

우선 「대동아」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주요 인물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아니라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설정한 부분, 그리고 중국인 학생인 범우생에게 학자인 가게이 박사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일본국체 사상과 중국과의 협력 문제이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조선인과 일본인의 내선일체 또는 조선인을 향한 대동아공영의 교화는 당시 『녹기』의 정치 담론 수준에서는 철지난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녹기』는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창씨개명과 조선어 폐지를 최초로 주장한 단체였다. 이런 성향의 매체에서 조선인을 대상으로 대동아 공영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11) 위의 책, 407-409쪽.

이고 안일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광수가 판단했을 것이다.

일제는 1939년 독소불가침조약 체결이후 대외정책을 변경하면서 ‘동아블록’ 정책을 밀고 나간다. 동아블록은 “일본을 선각자로 하고 실력의 중심으로 삼아 일본이 중추에 위치하고, 만주국, 몽고, 신흥 지나가 좌우에 배치된 모양”을 뜻하는 것으로, 일제는 국제인 황도정신으로서 동아시아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로써 ‘동아블록’의 실현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¹²⁾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내선일체나 지원병 관련 서사는 『녹기』 이념에 미달하는 주제가 될 공산이 높았다. 즉 이광수가 『녹기』에 실을 작품을 구상하면서 『녹기』에서 선전하는 정치 담론은 작품 기획 전략의 핵심으로 고려할 대상이었다. 이를 위해 이광수는 ‘동아블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중국과의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인 인물의 설정이 서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즉 현재 일본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인에 대한 교화는 ‘동아블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작용할 것이며, 『녹기』의 대다수 독자인 재조 일본인과 매체 담당자의 구미에도 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자의 측면에서 볼 때, 가께이 박사는 범우생에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교하고 교화에 애쓰고 있다. 하나는 일본의 국제정신의 위대함이며, 다른 하나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아블록’의 정책에 기반이 되는 사상이다.

“일본과 영미를 하나로 보는 것이 근본 착오다. 그들과 일본은 근본이념의 차이가 있다. 일본에도 여러 가지 결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의 성격은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일본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이므로 국가로서는 내국민에 대해서도 외국들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국가를 절대로 믿는 것이다. 만일 국가가 한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건국 이래 萬世一系의 천황에 의해 통치되고 있으므로, 일찍이 한 번도 국가가 국민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다네. 그것이 일본의 국체가 만방에서 으뜸인 것이며, 일본 국민의 애국심이 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일본 국민은 고노에의 삼원칙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노에의 성명은 어전회의를 통과한 것이므로, 더더욱 절대불변이라네. 됐는가, 알겠는가.”¹³⁾

12)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호,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6, 370-397쪽.

13) 이광수, 『대동아』(『녹기』, 1943.12), 앞의 책, 393-394쪽.

위의 인용문은 가게이 박사가 범우생에게 일본과 중국의 예(禮)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과 ‘영미’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천황에 의해 통치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황도정신이며 일본의 국체로서 세계의 으뜸임을 부각하고 있다. 이 논리는 『녹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영역인 ‘국체’¹⁴⁾인식, 즉 황도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일본 ‘국체’를 완전히 체화해야만 진정한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을 이룰 수 있다고 파악하는 이 단체의 사상을 가게이 박사가 그대로 범우생에게 설명하면서 교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시아의 모든 민족이 그 동종성, 그 형제성에 눈뜨고, 특히 그 공동운명성이라고나 할까,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도 맞지 않네. 그 이상이기 때문이네. 일본이 없이는 중국이 없으며, 아시아가 영국과 미국의 것이 되면 일본도 없는 것이네.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서는 영미의 독이빨로부터 자기를 해방하여, 빛나는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현현할 수 없는 것이다. 장개석이 일본을 넘어뜨림으로써 중국을 완성하려는 것은 착각이다. 일본과 자네의 조국은 화합하면 일어나고, 싸우면 쓰러지는 상관성이 있는 사이네. 이를 공동 운명성이라고 이름 붙여보세. 운명공동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르겠네. 일본이 자네 조국의 영토를 빼앗고, 자네 조국을 넘어뜨리고 일본만 일어서겠다는 야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고노에의 성명으로써 확실해 질 것이네. 자네는 고노에 성명을 알고 있지.”¹⁵⁾

위의 인용문은 다름 아닌 ‘동아블록’ 정책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동아블록’은 유럽중심의 기존 구질서에 대한 대립 개념으로 “아시아가 백인의 침략을 배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인의 아시아 실현”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즉 백인 제패, 구미 의존의 동아 구질서를 타파하고, 민족 협화와 東亞大同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八紘一宇의 대이상을 전 세계에 실

14) 국체란 ‘이본정신’으로, ‘天壤無窮’, ‘八紘一宇’로 표현되고 있으며, 문자 그대로 ‘天壤無窮’은 “하늘과 땅이 함께 끝이 없다는 뜻이다. 만약 그것이 희망이나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면, 천황은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무궁한 통치자로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八紘一宇’는 “그것이 현실이라면 그 통치의 범위는 일본 혹은 아시아 등으로 제한하기는 불가능하다. 범위는 무한하며, 적어도 전 지구를 뜻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성진, 앞의 글, 383-384쪽.

15) 이광수, 『대동아』, 앞의 책, 392쪽.

현하여 도의 세계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다.¹⁶⁾ 가게이 박사가 범우생에게 ‘중국과 일본이 서로 형제애를 갖고 협력하여 영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는 당시 『녹기』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조선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조선인의 내지화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었으며, 현 상황에서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동아블록’의 한 날개인 중국과의 ‘협화’인 것이다.

이러한 『녹기』의 정치 담론을 이광수는 간파했을 것이고, 서사를 통해 이것을 프로파간다 하고자 이 작품을 기획했을 것이다. 즉 중국과의 ‘협화’의 필요성은 서사에서 중국인을 등장시켜야 하며, 그것도 일본의 국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인공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광수의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중국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독특한 인물설정은 바로 『녹기』가 추구했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소설 『대동아』는 매체 『녹기』의 정치 담론을 전유하여 그 사상을 서사로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인이 될 수 있다』(1943.11.)는 『신태양』에 실린 작품으로 이 잡지는 마해송이 간행하던 대중오락잡지였던 『모던니혼』의 후신¹⁷⁾으로 전시 체제기에는 여느 잡지와 마찬가지로 대동아전쟁을 선동하는 내용들로 기획되었다. 이 소설은 1943년 ‘짜우는 조선 특집, 징병제도 실시 기념’호에 실렸다. 이 작품은 14년전 가네코 소장과의 만남으로 서사가 시작된다. 가네코 소장은 주인공의 집을 방문하여 군인 놀이를 하다가 잠든 주인공의 아들들을 본다. 이후 14년이 흐른 후 다시 만나 당시 징병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군인이 되고 싶어하던 주인공의 아들 봉일상이 죽을 때조차도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상황을 회상하면서 징병제도가 조선에 실시하게 된 것에 관해 기쁨의 축배를 나눈다. 가네코 상과 헤어지면서 주인공인 나는 조선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를 여러 번 외치는 장면에서 서사는 끝이 난다.¹⁸⁾

16) 박성진, 앞의 글, 390쪽.

17) 곽형덕, 『마해송의 체일시절-문예춘추, 모던일본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7쪽. (<각주 4>번 참고)

18) 이경훈은 이 작품을 “참전론과 함께, 한국인에 대한 징병을 내선일체의 실증으로 보며 감격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관점 및 그를 기반으로 한 위와 같은 소설의 구성은 이제 군인문제를 통해 바야흐로 국권과 독립, 또는 민족적 자기동일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려는 봉일이라는 순진한 어린이를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며, 준원의 개인적 민족적 고아의식,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화자이면서 일본인인 가네코 소장과의 만남에서 조선인 징병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과 화자인 나의 아들 봉일상이 죽어가면서도 군인이 되고 싶어 한 과거 회상이 서사의 두 줄기이다. 일명 액자구조로 14년 전 군인이 되고 싶다면서 죽어간 아들의 장면이 삽입되는데, 아들인 봉일상이 화자인 ‘나’와 그의 선생에게 한 마지막 말이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어?”이다. 이 물음이 죽어가는 장면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서사의 극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봉일의 머리는 중머리가 되어 있었다. 혼자서 이발소에 갔다 온 모양이다. 저녁 먹을 때 봉일은, “아버지.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어?” 하고 묘한 것을 나에게 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군인 문제로 또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언젠가도 이웃의 술집 아이가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고 했으며, 봉일이 분개하며 돌아와서 나에게 지금과 똑같은 것을 물었던 일이 있다. (중략-인용자) 봉일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이 움직인다고 생각되자, “선생님,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습니까?”봉일은 떨리고 있었지만, 확실히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실로 비통했다.(중략-인용자) “으응. 이번에도 또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때는 군인이 될 수 있어?” 봉일은 겨우 말을 마치자 눈을 감고 말았다.¹⁹⁾

위의 장면은 봉일이 ‘나’와 그의 선생에게 질문하는 것, 즉 청자는 ‘나’와 ‘선생’이지만, 기실 이 소설의 독자가 청자이기도 하다. 즉 『신태양』의 독자는 1할 5푼의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조선인이거나 『신태양』을 읽는 재조 일본인, 그리고 매체를 검열하고 규제하는 총독부 경무국 담당자들일 것이다. 결국 봉일이 죽으면서까지 외친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어?”라는 말은 천황의 신민이 되고자하는 조선인의 간절함을 일본인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자 징병제를 도입해 준 당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이광수는 일본어로 쓴 이 텍스트에서 현재 상황의 징병제 도입에 대해 감격과 당위성을 아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즉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식민주의 정치 담론의 선전선동의 역할을 했던 『신태양』의 메시지를 여과없이 서사화한 텍스트라 할 수

즉 아버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며, 새 아버지 찾기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9) 이광수, 『군인이 될 수 있다』,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376-379쪽.

있다.

『원술의 출정』(1944.6)은 일본어 매체인 『신시대』에 실린 작품이다. 『신시대』는 글의 주제나 필자의 위치, 독자의 성격에 따라 글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던 잡지이다. 이 잡지는 내지 내부의 발화, 즉 내각정보부, 육군성, 조선총독부 등 내지가 관리 감독하는 기관의 언설, 조선 지식인의 논설과 시국 해설, 중앙 발화를 해석 적용하여 대중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변용한 대중서사의 세 가지 틀로 나누어졌다. 내지 중앙의 발화가 맨 앞에 실려 이 달의 주제나 특집이 되는 첫 번째 층위라면, 이를 번역하여 조선의 대중에게 재전달하는 조선인 지식인의 발화가 두 번째 층위이며, 세 번째 층위의 발화는 대중 친화적이고 오락적인 글이다.²⁰⁾ 일본 중앙의 발화에서 ‘일본인’은 순수혈통을 의미했고, 이광수의 발화에서 언급되는 일본인이란 내지인과 조선인을 포함한 의미였다. 같은 매체 내에서도 필자의 층위에 따라 개념의 차이가 발생하는 잡지였다. 이광수는 『신시대』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층위에서 글을 썼다. 또 전향 후의 다양한 논설들은 이 잡지에 가장 많이 실기도 했다. 이즈음 『신시대』에 실은 논설은 주로 전쟁과 죽음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의 ‘죽음’에 대한 해석과 달라지면서 전쟁과 관련하여 ‘죽음’의 의미를 풀어내고 있다.

인간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은 사실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죽음이란 옷을 갈아입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고보다는 군인이나 관리가 제복을 갈아입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 것입니다.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군이건 관리건 다른 견장과 다른 금장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는 곧 승급입니다. 이 신체는 나의 현재 계급을 보여주는 옷이므로 이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임무를 수행했을 때 계급이 올라 새 제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죽음이며 삶입니다. 이것이 생사에 대한 올바른 견해이며 생사의 정체입니다.²¹⁾

위의 인용문은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며 옷을 갈아입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라고 꼬집는다. 그런 다음 전쟁의 의미를 서술하는데 결국 이 ‘죽음’은 전쟁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단상을 서사화한 것이 바로 『원술의 출정』이며,

20) 이원경, 『잡지 『신시대』의 성격과 역사독물』,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국제어문학회, 2014, 205-207쪽.

21) 이광수, 『전쟁과 문학』(『신시대』, 1944.9), 『친일문학전집2』, 평민사, 1995, 435쪽.

이 매체의 세 번째 층위의 글로 일제 말기의 다른 소설과 달리 조선의 역사를 소재로 가져와서 서사로 구성한 작품이다. 『신시대』는 역사독물을 상당부분 지면으로 할애하면서 대중 독자를 교화하고자 했다. 역사독물 방식으로 일본의 역사와 신화를 소개하고 대중에게 일본정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이 시기의 『신시대』는 일본정신을 재조 일본인과 일본어 해독이 가능한 조선인에게 선전하는 것이 목적인 잡지였다.

이광수의 「원술의 출정」은 신라의 원술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돌아온 것에 대하여 김유신이 죽이려 했으나 왕이 용서하여 태백산에서 숨어살면서 당나라에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시지적 측면에서는 전쟁에 나간 병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당대 전시체제 상황의 징병담론과 상통하는 주제라 볼 수 있다. 『신시대』의 역사독물은 강담, 역사소설, 야담으로 구성되었다. 강담은 일본정신의 전달과 변용을 담당한 반면에 역사소설과 야담은 타자화된 조선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서 매체의 프로파간다 전략과 교화 의도와 충돌하여 야담은 『신시대』에서 서서히 퇴출되었다. 그런데 역사소설 형식인 이광수의 「원술의 출정」은 조선의 고대 역사가 표출되더라도 주제적 측면에서 전쟁에 죽음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어서 『신시대』의 역사독물의 취지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또 원술의 원수가 중국인 ‘당나라’로 설정된 것과 ‘臨戰無退’를 계율로 삼는 화랑의 정신이 부각되어서 당시 정치담론을 선전하기에 적절한 서사로 작용했다.

텍스트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은 일본어 매체에 실려 주요 독자층이 ‘재조 일본인’과 ‘국어 해독 가능한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광수는 매체의 사상적 측면과 당국의 정책, 정치 담론을 고려하여 프로파간다의 전략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기연맹의 정치 담론을 전유하여 서사화한 「대동아」, 그리고 시국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매체에 실린 「군인이 될 수 있다」와 「원술의 출정」은 창작 당시의 식민당국의 정치 담론과 매체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서사화한 작품들이다. 각각의 작품들이 주제적 측면이나 인물의 설정, 장르적 속성 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던 것은 각 텍스트가 실린 매체적 특성, 그리고 정치 담론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정치 담론을 서사로 전유한 작가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매체 주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효용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III. 정치 담론과 현실 담론의 괴리

일제 말기 총독부는 조선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1944년 즈음 프로파간다의 목적으로 조선어를 허용한 매체도 있었다. 이광수가 194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어로 소설을 실을 수 있었던 매체가 바로 『방송지우』이다. 이 매체는 읽기 전용 매체가 아니라 듣기 매체인 방송용 소설로 시작되었다가 당시의 전시상황으로 인해 조선어 인쇄물로 출판된 경우이다. 방송소설은 주로 라디오 매체를 통해 읽혀졌고 문자를 모르는 대중에게 쉽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선전동용으로 일제 말기에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계몽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이 방송에서 일회성으로 읽히고만 있어서 원래의 목적인 프로파간다의 기능을 높이고자 이 텍스트들을 인쇄물로 제작하게 되었다. 문자를 모르는 대중들을 교화하는 수단으로 방송만한 매체가 없었으며, 방송은 문자해독력이 없는 수많은 대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발휘했다.

1940년 전후로 방송문에 텍스트가 잡지 등에서 자취를 감추다가 1943년부터 소설이나 잡지를 통해 간행이 된 것은 라디오 방송과 방송문의 성격의 변화 때문이었다. 즉 전시 동원과 국책 협력의 목적을 위해 라디오가 적극적으로 동원되면서 방송 문예가 군국주의의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국책 문학적 특징을 지닌 방송 문예를 총독부와 방송국에서 중요시하게 됨에 따라 방송된 텍스트를 다시 텍스트로 활자화하게 된 것이다.²²⁾ 국책 협력을 목적으로 쓴 방송소설에 이광수의 작품은 여러 편 실려 있다.²³⁾ 이광수가 1944년에 쓴 방송소설 중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은 당대 조선의 징병문제와 방공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들 역시 국어를 잘 모르는 조선인들의 충후방공과 국책 참여에 앞장설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22) 서재길, 『한국근대방송문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80쪽.

23) 이 시기 방송소설로는 방인근의 「모자」, 장덕조의 「새 시대의 모성」, 엄홍섭의 「어머니와 아들」 등의 작품들이 있다. 이 작품들도 주제적 측면에서는 「재생」, 「총후의 꽃」, 정비석의 「산본원수」, 채만식의 「이상적 신부」, 이기영의 「저금통」. 목양 전시 총동원에 협력하는 내용과 황국신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 대한 해석은 서재길, 「『방송지우』와 일제말기 방송소설」, 『민족문학사연구』 제22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3년 참고.

프로파간다적 텍스트들이다.

『방공호』(1944.9.)는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 국책에 참여하는 것이 미비함을 보여주고 구세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반면 「귀거래」와 「구장님」은 조선인들이 일본의 징병정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주인공들의 행위를 미담 형식으로 드러내어 다른 조선인들도 본받을 것을 종용하는 텍스트이다. 작가는 사건 구성적 측면에서 ‘감탄’의 플롯을 도입했다면, 인물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플롯을 활용하여 프로파간다의 한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프로파간다를 목적으로 하는 텍스트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광수가 이 작품에서 활용한 이러한 전략들이 당대의 정치 담론과 현실 담론의 관계 속에서 대중들에게 적합한 효과를 발휘했는가에 대한 것이다. 즉 이 작품이 당대의 조선인들에게 과연 프로파간다의 목적이 잘 수행되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이 작품을 방승으로 듣거나 소설로 읽은 독자들이 김의관처럼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일제의 총후봉공 정책에 적극적으로 합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광수는 조선인 대중독자의 프로파간다를 위해 신세대와 기성세대의 황민화 수준의 차이를 대조함으로써 시국에 필요한 인간상이 무엇인가를 각성의 플롯으로 보여주고자 의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파간다의 직접성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오히려 선전 교화에 기여하기보다는 1944년의 조선의 전시체제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재길은 『방공호』를 “젊은 세대들의 시각을 통해 김의관이라는 인물을 우스꽝스럽고 과장된 모습으로 그렸으며, ‘적기’의 침투가 예상되어 공습경보가 내린 비상 상황에서 방공호 속에 들어가 태연하게 제사를 지내는 김의관의 모습은 지나치게 회화화되었다는 혐의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서 “세대 간의 대립을 나랏일과 사싯일의 대립이라는 구도로 전환하고, 사적 욕망의 추구 그 자체를 윤리적인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국책협력의 필연성을 강변”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²⁴⁾ 이광수는 구세대의 대표적인 김의관의 각성의 과정을 통해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국책에 협력할 것을 선전선동하는 목적으로 창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창작한 1944년은 대동아 전쟁

24) 서재길, 「강요된 협력, 분열된 텍스트」, 『민족문화사연구』 제45권, 민족문화사연구소, 2003, 285쪽.

의 정점기로 일본은 여러 지역에서 패전을 경험하고, 전쟁 물자와 인력의 부족으로 조선에 심각한 공출을 자행하여, 조선인의 민심이 원한으로 가득 찬 시기였다. 이 시기 한반도 조선은 「방공호」의 경방단으로 활동하는 창식과 창임처럼 열심히 공습훈련에 참여하는 젊은이는 드물었다. 즉 공습상황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김의관을 희화화한 작품으로 읽히려면 그 당시 조선의 현실 상황을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일본 당국도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 태평양전쟁기간동안 조선이 공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실제로 연합군도 ‘조선에는 공습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격문을 여러 차례 뿌렸고,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게도 조선은 공습 안전지대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집 근처에서 소방 훈련도 하고 합동 회의도 가끔 열렸지만, 회의에 대리자 참석이 허용될 정도로 긴장감이 약했다.²⁵⁾

실제로 식민지 조선이 공습의 대상지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공습 대상 지역으로 상정했던 일본과 거의 같은 수준의 방공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전시체제를 운영하는 통치 정책 강화 및 동원 체제 운영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했던 점이다. (중략-인용자) 한반도는 후방지역이어서 아무리 총후보국을 강조해도 거주민들은 戰局과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국으로서는 전쟁의 위기 상황을 연출할 필요가 있었다. 가장 적절한 명분은 ‘공습’이었다.²⁶⁾

위의 글은 그 당시 조선에서 살았던 일본인들을 직접 만나 녹취한 내용과 당대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조선인들 사이에서 미군은 조선에는 공습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었고, 격문까지 뿌려진 상황이었다. 일제 당국의 강요에 의해 애국반과 경방단이 꾸려졌지만 기실 조선인들 대부분은 실제로 공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즉 「방공호」의 김의관이 조선에는 직접적인 공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조상님의 기일에 방공훈련을 하더라도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조선에 직접적인 공습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창식과 창임의 행동들이 더 낫선 상황인 것이다. 즉 그것이 조선의 현실

25) 사와이 리에, 김행원 옮김, 『엄마의 게이쵸,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144-145쪽.

26) 정혜경, 『『매일신보』를 통해 살펴본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방공정책과 프로파간다』, 『송실사학』제 27집, 송실사학회, 2011, 47쪽.

이었다면, 결국 그들의 행동은 당국의 강요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 파악해야 한다.

“오빠가 하는 일이 나랏일이니까 사실킬로는 몸이 빠지지 못 한단 말씀이요.”

창임이가 설명한다. 김 의관은 요새 세상 일이 모두 알 수 없고 뜻에 맞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어린 자식들까지도 도무지 아버 말을 아니 듣는 것이 비위가 뒤집혀서 견딜 수가 없었다. 창식이가 경방단원 복장을 입고 땡기는 것도 맞잡지 아니 하였고, 창임이가 시집갈 나이가 다 된 계집애가 몸뻘을 입고 단발머리를 하고 땡기는 것도 눈에 거슬렸다. 그러나 모든 일이 가장된 김 의관의 뜻대로는 되지 아니 하였다. 막중한 제사—그중에도 증조부 주부공 제사까지도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성화할 노릇이었다. 제주를 몰래 담그랴던 것도 창식의 반대로 작년부터는 못 하게 되었다. 제주를 사들이는 것도 창식이가 ‘야미’를 절대로 반대하기 때문에 내놓고는 못 하고, 김 의관이 사랑에 땡기는 늙은이들을 동원하여서 몰래 사들였다.²⁷⁾

위의 인용문은 김의관이 자식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시국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방단원 복장을 하고 몸뻘을 입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이다. 당시 방공정책의 우선 대상자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었고, 조선인들은 방공조직은 물론 프로파간다의 대상에서 소홀하게 취급했었다. 또 공습은 주거지가 밀집한 도시나 군수시설이 밀집된 곳이 대상이었고, 조선인들은 촌락에 거주하는 자들이 많아서 굳이 등화관제를 할 필요도 없었으며 화재에 대비해 가옥을 정리할 필요도 없었다. 또 조선인들은 방호단이나 경방단의 간부도 아니었고, 애국부인회나 국방부인회원도 아니었으며,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방공은 조선인과는 무관한 일이었다.²⁸⁾ 즉 『방공호』에서 보여주는 창식과 창임의 모습은 조선인 사회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김의관이 그들의 행동에 역정을 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상황인 것이다. 이광수가 그린 신세대의 형상화는 『매일신보』를 통해 식민 당국이 홍보하는 정책의 현현이며, 공습의 위험을 조장하여 식량 공출과 충후봉공에 참여키 위한 정치적 담론일 뿐이었다. 이광수는 현실담론과 거리가 있는 당대의 교조적인 식민주의 정치 담론을 서사화하여 대중 독자들을 선전선동하는 소재

27) 이광수, 『방공호』(『방송지우』, 1944.9.), 최주한,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 2014, 879-880쪽.

28) 정혜경, 앞의 글, 70-71쪽.

로 활용한 것이다. 즉 이광수가 구상한 ‘개선’의 플롯은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의 보편적인 현실 상황의 토대에서 발현되어야 프로파간다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반해 작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략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위의 인용문에서 언급된 ‘야미’를 통해 당대 조선사회의 물자 부족난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절대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조차 구할 수 없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필수 물자를 구입하려는 민중들의 생존권 차원의 암거래”²⁹⁾가 성행했다. 이를 총독부에서는 통제법령을 통해 법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했으나 물자 부족의 심각함으로 인해 ‘야미’는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였다고 한다. 즉 『방공호』에서 ‘야미’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창식의 태도는 당국의 정치 담론의 재현이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신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방공호』에 드러난 이광수의 프로파간다의 의도는 오히려 당대 현실을 역으로 드러냄으로써 기획한 전략이 현실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직접 공습을 받은 적도 없어서 전쟁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방공훈련’도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 자발성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광수가 의도했던 신세대를 통한 구세대의 각성은 그 당시의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은 미담의 영역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의관은 ‘공습상황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희화화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구세대의 전형적 인물일 뿐이다. 결국 『방공호』는 당대의 정치 담론과 현실 담론의 괴리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프로파간다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귀거래』(1944.1.)는 주인공 김참사가 자신의 아들이 내무성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갔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할 일이 있는 농촌으로 떠나서 충후봉공 하겠다는 ‘각성’의 플롯구조 텍스트이다. 이 작품 역시 신세대의 황민화 정신을 부각하여 구세대가 깨달음을 얻어 충후봉공에 힘쓰게 된다는 내용이다.

“왜 놀고 앉았어. 동네 사람들, 소작인들 대서라도 해주고 면소, 주재소에 다니는 심부름도 못해줘. 그래도 내가 밭 벗고 나서면야 동네 사람들, 작인들게 조금이

29) 이송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 통제 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 박사는문, 2003.9, 265-279쪽.

라도 도움이 되겠지, 안 될라고. 원체 지주가 땅은 시골 다 두고 저는 서울에서 호강하고 산다는 것이 이치에 어그러지는 일야. 나도 자식을 공부시킵네 하고 서울 와 사는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지마는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 날이 하루나 있었을 리가 있나. 하물며, 먹을까 먹힐까 하는 전쟁이 벌어진 오늘날, 자식이 충을 들고 전장을 나가는 판에 사지가 떨썈한 아비가 놀고 먹다니, 안될 말이지. 천별이 내릴 일이야. 제철야 나도 이제 깨달았다. 네게 배웠다. 나도 네가 떠나는 것을 보고는 산골집으로 갈란다. 그저 어찌 서울바닥에 가만히 앉았기가 노상 마음에 걸리드라니. 아까 바암을 받고도 어찌 꺼림칙하더라 말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걱정했으니까, 마음이 거뜬해. 논밭에 앉은 새를 날려 주더라도, 그냥 슬슬 논밭으로 작인네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덜 거북할 게다. 안 그렇소, 여보.”³⁰⁾

위의 인용문은 아들이 내무성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으로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버지가 서울에서 가만히 놀고먹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장면이다. 김참사는 서울로 떠나온 부재지주로 자신의 땅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고자 한다. 이러한 김참사의 논리는 당시 일제 총독부에서 내놓은 ‘지주’ 관련 농촌 대책과 연결된다.

1943년 1월에 일제는 『조선농업계획책정요강』과 『조선농업계획실시요강』을 발표한다. 이 요강은 농업 생산 향상을 위해 ‘지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총독부는 농업생산력 저하가 심각해지자 1944년 ‘농업생산책임제’를 시행하여 지주의 경제력을 활용하고자 했다. 이것은 생산 책임자를 농지소유자인 지주로 하고, 경작자는 마을 연대로 생산 책임수량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주 역시 토지의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 경제 주체가 아닌 ‘황국신민’의 일원으로서 봉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지주를 생산책임제로 한 것이 지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조치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강제를 부여한 것이었다.³¹⁾ 이러한 농업정책을 당시 관보인 『매일신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생산을 증대하고자 하였다.³²⁾ 일제의 정

30) 이광수, 『귀거래』(『방송지우』, 1944.9.), 최주한, 앞의 책, 851-852쪽.

31) 이송순, 앞의 글, 68-72쪽.

32) “지주는 皇土의 일부분을 빌려서 그것을 관리하는 중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보배인 많은 소작인을 거느리고 있으므로 진두에 서서 소작인을 피가 영킨 가족과 같이 지도하여 道義農村을 확립하고 증산의 중대 책임을 완수해야 함” 『군인정신으로 증산확보, 생산에 책임제 실시』, 『매일신보』, 1944. 2.8.

치 담론과 『귀거래』의 김참사의 논리는 동일하다. 지주가 총후봉공의 차원에서 자진하여 직접 농촌으로 내려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나서는 일은 정치 담론의 선전선동일 뿐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김참사의 아들 재철이 ‘내무성’의 공무원으로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고 지원병으로 떠나겠다는 것은 현실 담론을 떠나있는 미담의 차원이다. 이 시기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청년들은 징병일을 늦추는 것이 자유로웠다.³³⁾ 즉 일본 본국과는 달리 참정권이 없는 재조 일본인들은 일본의 전시 체제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당시 조선인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던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일본인조차 징병을 꺼려하고 미루고 있는 분위기에서 작품의 주인공은 내무성의 관리로 임관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군대에 간다는 설정은 프로파간다 전략의 과잉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귀거래』의 설정은 일제의 징병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 담론을 형상화한 것일 뿐, 조선인의 현실 담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 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구장님』(1945.1.)은 징병보다는 총후봉공의 선전에 더 집중한 작품이다. 구장을 하던 아들을 먼저 보낸 75세 된 노인이 남들이 꺼리는 구장일을 앞장서서 하고, 다른 마을보다도 농업생산량도 많아서 마을 사람들도 구장을 따라 열심히 총후봉공에 임한다는 내용이다. 이 텍스트 역시 1945년의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작품이다. 일제는 1942년부터 농촌에 ‘책임할당제’, ‘부락책임공출제’를 시행한다. 이것은 효율성을 앞세워 농민들간에 연대 책임을 지워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교묘한 농민 통제수단이자 공출 확보책이었다.³⁴⁾ 이 제도는 대다수의 농민들이 힘들어 했으며 무리한 공출 할당량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하였다. 일제의 공출할당량이 과대하였음은 공출을 강제하고 있던 경찰이나 총독부 자체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같은 지역의 농민들이 서로서로 감시하며 불신이 쌓여있는 이 시기에 구장님의 지시

33) 이 당시에 총독부에 근무한 일본인 여성의 구술에 의하면, “총독부에 근무하는 남성이 군대에 소집되어 가는 것을 연기해 주도록 원서를 쓰는 일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당시 일본인 남성이 소집 연령인데도 총독부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대 소집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이상한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와이 리에, 김행원 옮김, 앞의 책, 144쪽.

34) 이송순, 앞의 글, 122-123쪽.

대로 열심히 공출에 앞장서는 농민들은 현실 어디에도 없었다.

총독부는 일본에 대해 약속한 수량을 이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무가 있고, 道郡도 또한 本府에 대해 할당받은 수량은 절대로 공출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의 하에 심하게는 죽창을 가지고 가택을 수색하고, 농가는 농가대로 혹은 변소에, 굴뚝 아래에, 밭 가운데에 숨기는 식으로 음침한 공기가 지방 일대에 있어 살벌한 광경이 각 곳에서 전개되어 인심은 현저히 동요되기에 이르렀다.³⁵⁾

위의 인용문은 일제가 농민들에게 공출을 생산량보다 많이 책정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강제로 수색하고 억압하는 살벌한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의 현실에서의 농촌은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음침했고 농민의 저항과 원망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구장님』에 그려진 농촌은 풍요롭고 평화롭고 즐겁기까지 하다.

술이 서너 순배 돌아갔을 때에 늙은 구장님이 일어나더니, 광대 숭내를 내어 팔짓 다릿짓을 하면서, “저 건너 갈피봉에 비가 묻어 들어온다. 우장을 허리에 두르고 지심매려 갈까나”하고 육자배기를 하나 뽑고는, “열시구 좋을 시구” 하고 텅 실덜실 춤을 춘다. 박장이 일어나고 갈채가 일어난다. 군수도 서장도 모두 허리가 굽어지도록 웃는다. 구장의 뒤를 이어서 나도나도 하고 숨은 재주를 꺼낸다. 소리 하는 사람 춤추는 사람, 동이와 함지박으로 장난치는 사람, 이 즐거움은 언제나 끝날지 몰랐다. (중략-인용자) 군수와 서장 눈에 눈물이 글성글성하였다.³⁶⁾

위의 인용문은 1945년 생존용 식량도 없는 시절에 술과 고기를 돌려 잔치를 하고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일하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이 텍스트가 얼마나 현실 담론과 괴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다. ‘육자배기’가 흘러나오고³⁷⁾ 먹을 것이 풍요로운 『구장님』에 그려진 조선의 농촌은 이광수가 꿈꾸는 모습이지 이 시기의 조선의 농촌은 아니었다. 즉 선전선동의 목적에 너

35) 大藏省管理局, 1946,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歴史的調査』, 朝鮮篇 제9분 책, 52쪽, 이송준, 앞의 글, 재인용.

36) 이광수, 『구장님』(『방송지우』, 1945.1.), 최주한, 앞의 책, 894쪽.

37) 최주한은 “텐노 오해이가 만자이와 ‘육자배기’의 어울리지 않은 공존. 이 가운데 어느쪽이 이 조선인 농부의 육성이었는지 묻지 않아도 자명하다.”라고 분석하면서 이광수가 ‘말해야만 하는 것’과 ‘말하고 싶은 것’의 위태로운 균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주한, 앞의 책, 506쪽.

무 매몰되어 현실 담론에 기반을 두지 않은 환타지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요컨대 국어 해독이 불가능한 서민 계급의 대중을 대상으로 창작된 이광수의 『방송소설』인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 등은 주인공이 각성하여 새 시대에 맞는 인물로 탄생하는 ‘개선’의 플롯으로서 프로파간다를 기획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추구한 ‘개선’의 플롯은 주인공들의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고, ‘농업생산 책임제’나 ‘책임할당제’ 등 식민 당국의 교조적인 정책과 정치 담론을 토대로 창작되어 작가의 선전선동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그의 전략은 식민지 대중의 현실 담론과 괴리를 보이면서 프로파간다의 과잉으로 모순된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이광수의 의도된 프로파간다 전략이 오히려 당대 현실에 눈감아버리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텍스트와 현실 담론 사이에서 균열을 보이게 된 것이다.

IV. 결론

이 논문은 일제 말기 이광수의 징병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당대의 정치 담론과 매체, 그리고 현실 담론과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프로파간다 전략을 살펴보았다. 일제 말기에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조선인 작가들도 일본어로 창작하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광수는 1943년경에 징병관련 일본어 소설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을 창작하고, 1944년경에는 조선어로 창작한 방송소설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을 발표한다. 이 작품들은 주제적 측면에서는 대동아공영에 동조하고 징병을 종용하는 내용이지만 그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과 구성적 측면에서는 각각 차이가 드러난다. 또 매체의 특성과 일본어로 창작한 소설을 읽는 독자의 구성에 따라 이광수의 일본어 소설의 전략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대동아」는 이광수의 다른 소설과 달리 ‘중국인’과 ‘일본인’을 주요인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정신과 영미의 사상을 대조하여 일본 국체 사상을 강조하는 내용이 서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 구성과 국체 사상의 강조는 매체 『독기』의 사상적 측면과 상호연관이 된다. 이 당시 『독기』는 유럽

중심의 구질서를 타파하기 위하여 ‘동아블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이광수는 『대동아』에서 ‘동아블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국’ 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재 중국과의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중국인을 향한 교화는 ‘동아블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파간다로 작용할 것이며, 『녹기』의 대다수 독자인 재조 일본인과 매체 담당자의 구미에도 맞을 수 있었다. 중국인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독특한 서사 구조를 한 소설 『대동아』는 매체 『녹기』의 정치 담론을 전유하여 그 사상을 서사로 재현한 것이었다.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군인이 되고 싶어 하던 주인공의 아들이 죽으면서 남긴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어?”라는 말이 청자인 ‘나’와 일본인 ‘선생’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천황의 신민이 되고자하는 조선인의 간절함을 『신태양』의 일본인 독자에게 호소하는 것이자 징병제를 도입해 준 당국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로 작동하였다. 결국 이광수는 일본어로 쓴 이 텍스트에서 현재 상황의 징병제 도입에 대한 감격과 당위성을 아들의 ‘죽음’으로 강화하고자 하였다. 『원술의 출정』은 글의 주제나 필자의 위치, 독자의 성격에 따라 글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랐던 잡지 『신시대』에 실린 작품이다. 『신시대』는 역사독물을 상당부분 지면으로 할애하면서 대중 독자들에게 일본의 역사와 신화를 소개하고 일본 정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원술의 출정』은 조선의 고대 역사가 표출되었지만, 주제적 측면에서는 전쟁에 죽음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어서 『신시대』의 역사독물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했다. 또 원술의 원수가 중국인 ‘당나라’로 설정된 것과 ‘臨戰無退’를 계율로 삼는 화랑의 정신이 부각되어서 당시 정치 담론을 선전하기에 적절한 서사로 작용했을 것이다.

『대동아』, 『군인이 될 수 있다』, 『원술의 출정』은 일본어 매체에 실려 주요 독자층이 ‘재조 일본인’과 ‘국어 해독 가능한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이광수는 매체의 사상적 측면, 당국의 정책과 정치 담론을 고려하여 프로파간다의 전략을 세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작품들이 주제적 측면이나 인물의 설정, 장르적 속성 등이 차이가 났던 것은 각 텍스트가 실린 매체의 정치 담론과 특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러한 정치 담론을 서사로 전유한 작가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매체 주관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용성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44년경에 이광수가 창작한 조선어 방송소설 『방공호』, 『귀거래』, 『구

장님』은 당대 조선의 징병문제와 방공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이 작품들은 국어를 잘 모르는 조선인들의 총후봉공과 국책 참여에 앞장설 것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의 플롯으로 기획된 프로파간다적 텍스트들이었다. 『방공호』에 드러난 이광수의 프로파간다의 의도는 오히려 당대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기획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인들은 직접 공습을 받은 적도 없어서 전쟁의 ‘공습’에 대한 공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방공훈련’도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 자발성을 보였다고는 할 수 없다. 이광수가 의도했던 신세대를 통한 구세대의 자각은 그 당시의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은 미담의 영역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김의관은 ‘공습상황에서도 제사를 지내는 회화화된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구세대의 전형적 인물일 뿐이다. 결국 『방공호』는 당대의 정치 담론과 현실 담론의 괴리를 보여주는 텍스트로 프로파간다의 전략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인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귀거래』(1944.1)는 주인공 김참사가 자신의 아들이 내무성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병으로 전쟁에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할 일이 있는 농촌에 가서 총후봉공하겠다고 결심하는 ‘각성’의 플롯구조 텍스트이다. 일본인 조차 징병을 꺼려하고 연기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내무성에 합격한 주인공의 군 입대 설정은 프로파간다 전략의 과잉으로 노출하는 것이다. 또 부재지주인 김참사가 고향에 내려가 작인들을 돕겠다는 것도 당시 일제의 ‘지주생산책임제’ 논리의 연장이며 교조적인 정치 담론의 서사화일 뿐이다. 이와 같은 『귀거래』의 설정은 일제의 징병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정치 담론을 형상화한 것일 뿐, 조선인의 현실 담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프로파간다 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구장님』(1945.1)은 구장을 하던 아들을 먼저 보낸 75세 된 노인이 남들이 꺼리는 구장을 맡아서 다른 마을보다 생산량을 높이면서 총후봉공에 모범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당시의 조선 농촌은 ‘부락책임공출제’의 실시로 농민들끼리 감시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장님』의 마을만은 곡식이 넘쳐나고 포상까지 받는다. 즉 1945년은 생존용 식량도 없는 시절로서, 술과 고기를 돌려 잔치를 하고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일하는 농촌이 얼마나 현실 담론과 괴리가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이다. ‘육자배기’가 흘러나오고 먹을 것이 풍요로운 『구장님』에 그려진 조선의 농촌은 이광수가 꿈꾸는 환타지의 영역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다. 즉 선전선동의 전략에

너무 매몰되어 현실 담론에 기반을 두지 못하여 설득력을 잃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이광수의 『방송소설』인 『방공호』, 『귀거래』, 『구장님』 등은 주인공이 각성하여 새 시대에 맞는 인물로 탄생하는 ‘개선’의 플롯으로서 프로파간다를 기획한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이 추구한 ‘개선’의 플롯은 주인공들의 현실에 토대를 두지 않고, ‘농업생산 책임제’나 ‘책임할당제’등 식민 당국의 교조적인 정책과 정치 담론을 토대로 창작되어 작가의 선전선동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즉 이광수의 의도된 프로파간다 전략이 오히려 당대 현실에 눈감아버리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텍스트와 현실 담론사이에서 균열을 보이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이광수,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 _____,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 최주한, 『부록편: 방송소설 텍스트』,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 2014.

2. 단행본 및 논문

- 곽형덕, 「마해송의 체일시절-문예춘추, 모던일본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33권, 한국문학연구학회, 2007.
- 김경미, 「1940년대 어문정책하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 연구」, 『한민족어문학』 제5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12.
-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호,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6.
- 서재길, 「한국근대방송문예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6.
- _____, 「강요된 협력, 분열된 텍스트」, 『민족문학사연구』 제45권, 민족문학사연구소, 2003.
-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1998.
- 이명화, 「조선총독부의 언어동화정책」,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9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5. 12.
- 이승순, 「일제말기 전시 농업 통제 정책과 조선 농촌경제 변화」, 고려대 박사논문, 2003.9.
-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제50권, 역사문제연구소, 2000.2.
- 이원경, 「잡지 『신시대』의 성격과 역사독물」,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국제어문학회, 2014.
- 정진석, 『전쟁기의 언론과 문학』, 소명, 2012.

정혜경, 『『매일신보』를 통해 살펴본 일제하 식민지 조선의 방공정책과 프로파간다』, 『숭실사학』 제27집, 숭실사학회, 2011.

채호석, 『1940년대 일본어 소설 연구: 『녹기』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제37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10.2.

최주한, 『이광수의 친일문학을 다시 생각한다』, 『이광수와 식민지 문학의 윤리』, 소명, 2014.

宮田節子, 이형남 옮김, 『조선민중과 황민화정책』, 일조각, 1997.

澤井理恵(사와이 리에), 김행원 옮김, 『엄마의 계이조 나의 서울』, 신서원, 2000.

Abstract

A Study on the Strategy of the Propaganda in Lee Gwang-soo's Novels that were Related to Conscription

Kim, Kyung-m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paganda strategies around the conscription related novel of Lee Gwang-soo through the cross relations with the political discussion revealed to the text and situation and medium at that times.

“Daedonga”(대동아), “it can become the soldier”(군인이 될 수 있다) and “the departure for the front of the wonsul”(원술의 출정) formed the strategy of the propaganda considering the thoughtful aspect of the medium and authorities policy and political discussion. Lee Gwang-soo was able to make in that it was taken to the Japanese press media, the intended audience was ‘Japanese live in Korea’ and ‘Koreans the who are able to decipher the language’. The strategy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medium and language. The propaganda strategy of the author having this political discussion to the prologue can say that show the utility in the situation of the medium supervisor considerably.

There is ‘the broadcasting novel’ “bangongho”(방공호) of Lee Gwang-soo who is the propaganda created against the public of the humble classes of which the language decode is impossible in the purpose, “returning to the hometown”(귀거래), and “koojang”(구장님). These works are created on the foundation of the dogma political discussion of the colonization authorities and displays the reality discussion of the colony public and gap. So, the propaganda strategy of Lee Gwang-soo is failing. The propaganda strategy of Lee Gwang-soo showed the dereism of the prologue since excluding the real situation. In conclusion, the intended strategy is showing the distance

between text and reality.

- Key words: Lee Gwang-soo, conscription, the propaganda strategy, medium, the political discussion, “Daedong-a”, “it can become the soldier”, “the departure for the front of the wonsul”, “bangongho”, “returning to the hometown”, “koojang”, *nokgi*

이 논문은 2015년 11월 20일 투고되어 2015년 12월 16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5년 12월 23일 게재 확정되었음.